

베어스타운 퍼브릭 골프장 안전 '危險'

전동카 브레이크 파열시 인명사고 우려



▲스키장 리프트 구간으로 전동카 탈선시 계곡으로 추락위험이 있다
 포천시 내촌면 소하리에 위치한 베어스타운 퍼브릭 골프장이 안전 시설 미비와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안전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한번 이곳을 찾은 골퍼들은 다시 찾기를 꺼려하며 '대중골퍼들의 목숨을 담보로 상술에만 연연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3번홀에서 4번홀로 이동하는 길은 아주 경사도가 높고 7번홀에서 8번 홀로 가는 길 좌측 스키장 리프트 아래는 낭떠러지로 전동카가 추락하게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짐에도 이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또 9번 홀과 1번 홀 사이에 안전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9번홀에서 1번 홀로 볼이 골퍼들에게 날아갈 소지를 안고 있다.

가파른 경사도에 비해 짧은 4번홀에서 대부분 골퍼들이 마음놓고 스윙을 해 볼이 7번 홀에서 나오는 전동카를 강타할 위험에도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요원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여론에 대해 포천시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 베어스타운 퍼브릭 골프장 관계자는 "각 홀마다 이동이 편리하도록 시멘트 포장을 했다"며 "전동카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 브레이크 파열과 같은 고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곳 사용료는 비회원의 경우 1인당 3만원이며 전동카 사용료는 1대당 2만원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net

포천시 범종 제작 9억원 모금계획 '무리수'

'포천문화원은 들러리 역할 아니냐' 반발

포천시가 9억3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포천시민의 종(이하 범종)을 제작기로 계획하고 민간단체인 포천문화원에 발기인모임을 요구해 포천문화원 일부 이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일부 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종 제작 발기인 모임을 포천문화원이 주도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포천문화원이 범종제작 발기인 모임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이사들은 갈수록 내수경기가 불투명하고 서민경제가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때

에 포천시민의 종 제작계획을 세우는 포천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민들의 모금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밝혀져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포천시는 범종의 규모를 15만 시민을 기념하는 무게 15톤, 종각 15쌍 규모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범종 제작을 위한 사무실 신설 등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문화원은 명의만

발리는 것이며 실질적인 업무는 포천시에서 모두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이 같이 힘을 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모금되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부족분은 경기도예산을 지원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천시민의 종 제작에 따른 시민모금운동 추진 계획에는 시민 1인당 6천원으로 기금 모금 목표액을 9억원으로 하고 6개월동안 모금기간을 정해 추진하고 부족분은 시예산으로 지원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net

휴가기간 절전 한전에서 지원금

7월19일~27일, 8월9일~20일 대규모 절전고객

전기사용 규모가 큰 기업이라면 여름 휴가나 설비보수 또는 작업 스케줄만 잘 조정해도 상당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전경기북부지사(지사장 정연수)는 휴가철인 7월말에서 8월초를 피해서 부하조정기간(7월19일~27일, 8월9일~20일)중 한전과 사전에 약정한 일정기간 동안 전력사용을 줄일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제도는 집단휴가나 생산시설 보수 기간으로 낮 시간대의 최대 수요전력을 50%이상 줄이는 '휴가?보수기간 지원제도'와 오후 2시~4시 사이의 평균전력을 오전보다 20%이상 줄이는 '자율절전 지원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에어컨 등 냉방전력으로 인해 여름철 낮 시간대에 발생하는 연중 최대피크를 분산하기 위한 제도로써, 전력설비 투자비

절감과 부하를 향상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올해는 국제유가 인상 등 에너지 절약이 요구되는 시기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국가 경제난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북부지역에서 '휴가?보수기간 지원제도'로 157개 업체가 1억7천 여 만원, '자율절전 지원제도'로 67개 업체가 8천5백 여 만원을 지원받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고객은 6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가까운 한전 지사·지점이나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한전지점 영업과장 이기욱(☎ 031-539-0233)
 대리 원현정(☎ 031-539-0274)
 정병길 기자 jpk61@hanmir.com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修練대회

17일, 청평양수발전소 견학과 함께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 유병호)는 지난 17일 제30차 정기회의 및 춘계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견학과 수련대회에는 유병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최호열 본지 발행인, 윤이용 부위원장,김대규 고문, 권혁운 총무 등 16명의 위원과 본지 직원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청평양수발전소는 1974년에 착공해 1980년에 완공했으며 저장할 수 없는 전기의 특성상 호명산 정상에 인공의 산정을 만들어 심야에 물을 호수로 끌어올려 두었다가 전기가 필요한 시기에 낙차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유병호 위원장은 수련대회 인사말을 통해 "포천신문이 포천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선두 매체로서

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인 도움이 될 것을 약속하며 오늘 하루 운영위원들 상호간에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호열 포천신문 발행인은 "운영위원회가 제1회 포천민속경시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처럼 앞으로 포천신문의 크고 작은 행사마다 도움을 계속되기를 기대한다"며 "보다 내실 있고 알찬 신문사 경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련대회는 견학에 이어 점심식사와 더불어 위원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 포천신문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net

이번호 지면/안내

- 3면** 포천을 빛낸 사람들 특별 인터뷰
포천을 빛낸 사람들 인물 34- 포천군의회 초대의장 이며 현재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을 만나 보았다.
- 8면** 이봉석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서예가 이봉석씨 제23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에서 특선수상.
- 15면** 가산면사무소 우금리 이천 결정
가산면 청사 추진위원회가 청사를 우금리105번지로 이전 키로 할에 따라 마산리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 16면** 학교체육의 현황
전인적 축구 꿈나무 육성의 요람 현장 (가산초등학교 유소년 축구단)



▲포천시 충훈탑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오직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순국하신 포천 출신 호국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시민의 정성을 모아 건립된 충훈탑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상징하고 있다.
문지연기자 soma7000@naver.com

생활속의 편리함 **삼호상사**가 함께 합니다

최첨단 기계설비와 최상의 기술로 최고의 제품을!!!

산업용, 공업용, 가정용 플라스틱용기 제조, 판매



삼호상사는 150여 종류이상의 다양한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생산하며 양질의 플라스틱 원료 사용으로 견고성, 광택성, 기능성까지 갖춘 최고의 플라스틱용기를 생산 합니다.